

국민정체감에 대한 여러 관점: 세계화 및 다문화사회를 위한 연구 제언

신상희[†]

허태균

Yoshihisa Kashima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University of Melbourne

국민정체감이란 사람들이 자국민이나 자기 나라에 소속감을 갖는 것을 일컫는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진행되며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학적 틀로 국민정체감의 두 가지 다른 관점에 대한 연구 경향을 개관하였다. 첫째, 국민정체감의 본질을 중심에 놓고 보는 관점으로 사람들이 혈연, 문화, 법제도와 같은 여러 기원 중 어느 요인에 근거해 국민이 구성된다고 믿는가에 따라 구분된 국민정체감을 살펴보았다. 이 관점은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국민정체성의 주관적 의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그다지 잘 예측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로 국민정체감을 결과에 따라 이른바 애국심과 국수주의로 구분하는 관점에 대한 이론적 논점과 경험적 연구 경향을 개관하였다. 이 관점이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각 관점마다 장단점이 존재했지만 두 관점 모두에서 역사적 요소가 국민정체감에 시사하는 바가 큼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 관점을 잘 운용하면 심리학 일반이 이론을 개발하고 다문화사회를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국민정체감, 본질, 애국심, 국수주의, 역사

[†] 교신저자: 신상희,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인문계 캠퍼스 법학관 구관 318c
E-mail: robbinsh@korea.ac.kr

세계화 속에서 한국은 고유의 전통을 잊고 동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계의 다른 곳에서 온 정보와 사람들로부터 우리와 차이점을 더 크게 느끼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세계화는 흔히 생각하듯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지난 20세기 내내 세계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21세기부터 그 현상은 일반인들조차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말 무렵까지만 해도 이제 국경이 사라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일 것이라는 생각이 세계화에 대한 예측의 주를 이루었다. 물론 크고 작은 마찰이 존재하고 때로는 전쟁을 겪기도 했지만, 세계화가 가져올 긍정적 미래를 퇴색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는 깊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장미빛 상상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났던 테러로 한 순간에 뒤집힌다. Huntington(1998)이 예언했던 ‘문명의 충돌’이 실제로 벌어지는가에 대해 모두 의문을 던지게 된 것이다. 즉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경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정 반대의 예측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의문은 국내에서도 유효하다. 정보기술에 힘입어 세계화의 선두에서 있는 한국은 매 해 해외유학 학생 수와 해외여행 경비를 갱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여행객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화,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심리학 일반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국내외 많은 심리학자 및 사회과학자들이 국민정체감(national identification)에 대한 연구를 세계화나 다문화사회와 연관

시켜 진행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정보가 흐르다 보니 사람들이 국민 혹은 문화정체감을 보다 크게 자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대 세계에서 국민이나 문화, 민족은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Edensor, 2002) 이러한 사회범주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심리적 요소일 수 있다. 바야흐로 한국이 세계화를 적절히 수용하고 다문화사회로 잘 진입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세계화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 혹은 타국의 문화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관련해서 국민정체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명백해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정체감과 관련된 연구를 개관할 것이다. 그 다음 한국인의 국민정체감과 관련하여 한국의 다문화사회 맥락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세계화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필요한 심리학적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정체감이란?

자기개념(self-concept)은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뿐만 아니라 사회정체감(social identification)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 Turner, 1979)에 따르면, 개인이 스스로 속해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범주로부터 발생하는 이미지에 의해 자기개념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회적

범주가 가지는 속성을 그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이론은 긍정적 자기개념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사람들에게 있다고 가정하고 이로부터 내집단을 편애하고 타집단을 차별하는 행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을 인지적 관점에서 발전시킨 자기범주화 이론(self-categorisation theory; Turner, 1987)은 애초에 어떻게 개인이 사회정체감(social identification)¹⁾을 가지는지에 대한 사회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사물의 범주화와 마찬가지로 이를 설명하는데, 변량분석 은유(metaphor)를 사용하여 개인이 어떤 집단에 정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해당 집단과 같은 짐, 그리고 그 집단과 타집단의 다른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개인이 해당 집단의 다른 성원과 같은 사회정체감을 공유하게 되면 집단 규범에 맞게 행동할 것임을 예측한다. 이로써 개인은 한 집단의 성원으로서 행동하게 되고, 나아가 집단사고나 집단의사결정과 같은 현상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사회정체성 이론과 자기범주화 이론을 포괄

하는 사회정체성 관점(social identity perspective)에서 국민정체감(national identification)은 이런 일반적 사회정체감 과정의 한 구체적 예로 볼 수 있다(Tajfel & Turner, 1979; Turner, Hogg, Oaks, Reicher, & Wetherell, 1987). 즉 국민(nation)의 일원으로 자기 자신을 범주화하여 다른 국민 구성원과 유사하다 느끼고 정서적 유대를 갖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적이나 시민권이 국민정체감의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단 소속여부와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체성 관점에서 한 집단에 사회정체감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며 이에 공식적 성원자격(membership)이나 성원들 간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차원적 국민정체감

초기 사회정체감 연구에서는 생소한 집단에 무작위로 성원자격을 주어도 내집단을 편애하고 타집단을 차별하도록 만드는데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최소집단패러다임(minimal group paradigm)은 현실 집단에 대한 정체감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특히 세계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국민정체감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정체감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Huddy(2001)는 특정 사회 집단의 성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에서 주관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Huddy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가치, 태도,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

1) 정체성(identity)은 개인의 본질적 특성을 말하고, 정체감(identification)은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여기는 것이다(Reber & Reber, 2001). 따라서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은 어떤 집단에 존재한다고 믿는 본질적 특성을 일컫고, 사회정체감(social identification)은 개인이 어떤 집단의 특성을 자신도 공유한다고 지각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문헌을 보면 사회정체감이라는 개념은 자기범주화이론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자기범주화이론을 소개하면서 해당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개념은 ‘동일시, 정체화, 정체도’ 등의 용어로도 번역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로 가장 자연스럽게 의미에서도 어긋남이 없는 ‘정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고 한다. 또한 사회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역사적 문화적 요인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민과 같이 역사를 가진 집단의 사회정체성이 주는 의미는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것이며 역사적 기억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따라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는 국민정체성의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두어 국민정체성이 다차원적 구성개념임을 제안하고 국민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정체성 관점에서 볼 때 국민정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자국민의 역사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채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자국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라 하더라도 자국민 성원이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Doosje와 동료들이 발견한 연구결과이다 (Doosje, Branscombe, Spears, & Manstead, 1998). 정체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정체감이 낮은 사람들이 추악한 과거에 대한 집단죄의식 (collective guilt)을 더 크게 경험했다. 이는 정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방어하는데 가장 동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Branscombe과 Doosje(2004)는 최근 이 입장에 대해 엇갈리는 일련의 연구를 개관하여 보고하였다. 즉 다른 연구에서 국민정체감은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집단에 근거한 죄의식을 수용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Branscombe, Slugoski, & Kappen, 2004). 이렇듯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Doosje와 Branscombe, Spears, Manstead (2004)는 사람들의 집단적 죄의식이 정보의 출처에 따라 달라짐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 정보를 타집단 성원으로부터 알게 되었을 때 내집단이 저지른 과거 비행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정도와 국민정체감이 부정 상관을 가진다는 Doosje 등(1998)의 연구 결과를 반복검증하였다. 반대로 참가자들이 내집단 출처에서 그 부정적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는 국민정체감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내집단의 과거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죄의식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 정보가 타집단에서 기원하면 국수주의와 같은 국민정체감을 촉발하고 내집단에서 기원하면 애국심과 비슷한 국민정체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집단에 기초한 죄의식과 국민정체감이 때때로 상반된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겉보기에 상반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국민정체감의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연구 관점을 개관할 것이다. 우선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국민정체감의 본질에 대한 연구 경향을 다음절에서 살펴보고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 연구 경향의 한계점을 짚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국외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애국심과 국수주의라 불리는 국민정체감의 결과가 옳냐 그르냐를 놓고 구분하는 관점을 개관하고 그 장단점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연구 관점에 따라 국민정체감을 구성하는 차원의 내용과 그 심리적 결과가 달라지지만, 두 관점 모두에서 역사적 의미가 국민정체감의 중요한 주관적 측면이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국민정체감에 대한 본질 중심적 관점

국민정체감이 때로는 자국민역사를 더 아름

답게 채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단 죄의식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기도 하는 이 상반되어 보이는 현상은 국민정체감의 본질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국민정체성 자체가 다양한 범주로 나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범주의 국민정체성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기원 혹은 본질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국민정체감과 역사인식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민정체성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논쟁은 국내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만 국한되어 벌어진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국민이 자연적이며 처음부터 존재해 왔다는 민족(ethnic) 중심주의를 주장하나(Greenfeld, 1992; Hastings, 1997), 다른 학자들은 국민이 현대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규정한다(Anderson, 1991; Gellner, 1983; Hobsbaum & Ranger, 1983). 국민의 기원에 대한 이 두 상반된 주장은 국민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회심리학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기원이나 합법성의 근거로서 본질은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 가지는 신념, 그래서 애초에 국민정체감을 가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본질(essence)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애초에 무엇이 국민정체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알려 줄 수 있다는 것이다(Whelan, 2007).

심리적 본질주의

자기범주화 이론에서 자기 범주화는 자기가 얼마나 집단전형(prototype)과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지각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앞 절에

서 설명한 것을 다시 표현하면 자기 범주화는 자기와 집단 전형 간 유사점이 극대화되고 내 집단과 타집단 전형 간 차이가 극대화될 때 가장 일어나기 쉽다. 이런 범주화를 통해 개인은 집단 전형이 표상하고 있는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를 집단 성원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규정하기 쉽다. 이렇게 사회적 범주를 본질화하면 임의적 범주에 혈연이나 문화, 법, 제도와 같은 깊은 의미가 고취될 수 있다. 이는 심리적 본질주의(psychological essentialism)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심리적 본질주의란 어떤 사물이 실제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 사물의 표면적 특징이 그 기저의 본질이 나타난 결과라고 사람들이 믿는 현상을 일컫는다(Medin & Ortony, 1989). 그 대표적 예가 사람들이 민족을 ‘생물종’처럼 이해하는 것이다(Gil-White, 2001). 따라서 국민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쉽게 관찰 가능한 특성을 넘어서 그들의 기원과 본질적 특성을 포함해 그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구성하고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국민국가의 정치적 실체와 민족, 문화, 역사적 실체가 일치함을 가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Chernilo, 2011)은 차지고, 국민의 구성과 국민정체감의 기원을 찾는 방법에 대한 여러 차원을 사회학이나 정치학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사회학자 Smith(1991)는 혈통에 기반한 국민정체성과 법제도에 기반한 국민정체성 두 가지 차원 중 어떤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국민정체감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전자는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고 민족, 언어, 문화적 요소에 기반한 실체(entity)로 국민을 개념화해서 이에 정체감을 가지는 것이다. 혈통차원에서 국민의 구성은 동일 조상의 후손, 공유하는 신화 및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데,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혈연처럼 주어진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반면 후자는 영토, 법,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동일한 제도, 권리, 의무를 가지고 한 통치지역에 사는 정치적 집단, 즉 시민들이 국민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정체감을 가진다. Jones와 Smith(2001)도 개인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혈통적 국민정체성과 법제도적 국민정체성 중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중심으로 국민정체성의 차원을 구분했다. 또한 세계화가 강화되고 국제적 이민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국민정체감의 기초가 세계화와 국제적 이민으로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혈통에 근거한 국민정체감의 옛 생각을 버리기를 주저함을 관찰하였다. 한편 사람들이 권력 및 사회적 제도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심리적 합법성(Tyler, 2006)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이 자국민에 의무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제도차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심리적 합법성은 국민집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아니 되는지에 대한 맥락, 그리고 타집단과 관계에 대해 지각하는 데 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두 차원은 시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뿐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로도 작동할 수 있다(Jones & Smith, 2001; Smith, 1991).

혈통차원과 법제도차원

많은 연구자들이 정치 사회학적 문헌에서 혈통적 혹은 법제도적 국민정체감이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였다. 이렇게 본질에 근거한 국민정체성의 차

원 구분에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국민의 타집단의 의견을 거부할 확률이 크고 법제도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에 수용할 것이라 예측한다. 그러나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데, 더군다나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그 이론적 예측에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국민정체성의 혈통차원과 법제도차원 모두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국민정체성의 두 차원이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최송식, 김희재, 2011). 따라서 세계화나 다문화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심리적 결과가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혈통 대 법제도에 기원을 둔 국민정체성의 경험적 차원 구분이 이론적 구분보다 더 모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Smith(1991)는 혈통 차원에 언어 및 문화적 개념을 포함하고 법제도 차원에 영토나 국적을 포함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는 이와 달랐다. 한 국내 연구에서 언어는 법제도 차원에 속했고 국적이거나 영토 개념이 혈통차원에 포함되었다(정기선, 이선미, 2011).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언어가 시민차원에 국적이 혈통차원에 포함되었으며 중국에서는 두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에 실패하였다(김현숙 등, 2011). 혈통과 법제도적 차원 구분에 대해 이렇게 상이한 요인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은 각 국가에서 민족, 국민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국민정체성 또한 다르게 형성되었기(Brubaker, 1992)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급기야 최현(2007)은 한국에서는 혈통-영토 차원과 시민-법제도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문화적 요인은 출생 지역과 계층 등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차원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중립적 위치를 점하거나, 두 차원 중 어디에도 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동아시아 국가라 해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차원구분이 타당한지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경험적 구분의 혼란을 반영하듯 최근 연구에서는 국민정체성에 혈통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법제도적 견해를 동시에 지니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Tilley, Heath, & Ford, 2006). 이는 현대 국민은 둘 중 어느 한 차원의 산물이기만 한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언제나 두 차원의 영향을 동시에 다른 수준으로 받거나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Jones & Smith, 2001). 즉 국민이 어느 정도는 현대에 생성되었음을 받아들인다 해도 자유롭게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민족(ethnie)’이라고 일컫어지는 문화사회적 기초를 형성하는 기존의 민족적 지리적 경계로부터 구성되고 그로 인해 제한된다는 것이다(Smith, 1991). 따라서 모든 문화권에 걸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민정체감의 경험적 요인구조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측정도구가 국민역사, 관습, 언어 등의 문화적 경험을 배제한 상태로 구성해야하는데(이순형, 1991) 이 연구방법상의 과제가 경험적으로 극복가능한지는 답하기가 무척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연구자들은 기원에 근거한 국민정체성의 두 차원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윤인진, 송영호(2011)가 이 이차원적 국민정체성을 서로 교

차시켜 사차원으로 확대하여 연구한 결과 혈통적 특성과 법제도적 특성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참가자들이 다문화를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주민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같은 법제도적 국민정체감이냐 혈통적 국민정체감이냐 해도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두 차원의 상호작용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Hesli와 Hansen(2009)도 약간 다른 방식으로 국민정체성을 사차원으로 분화하였고, 이러한 개념화를 토대로 혈연적 애착이 강한 집단도 다시 타집단에 관용적이거나 관용적이지 못한 집단으로 나뉘고 혈연적 애착이 약한 집단도 그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생물학적 대 문화적 본질주의

더 나아가 다른 연구자들은 혈통차원을 또 다시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에서 본질주의 믿음(essentialist beliefs)에 대한 연구와 이론화는 생물학적 의미의 본질을 함축하는 자연주의 종류의 신념과 문화적 가치나 유산이 집단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믿음이 혼재되어 광범위하게 개념화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 민족이나 인종은 혈통과 문화가 뒤섞인 개념으로서 이 둘을 분리해서 문화적 상징주의와 생물학적 상징주의가 각각 어떤 다른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논쟁은 많으나 아직 경험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단지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연구에서는 민족이나 인종을 생물학적으로 본질화하고 다른 연구는 문화적으로 본질화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가지면 인종(race)

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이 높아져서 (Keller, 2005; Prentice & Miller, 2007) 인종 간 불평등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Williams & Eberhardt, 2008)고 한다. 이는 여성과 같은 다른 인간 범주에도 해당된다(Martin & Parker, 1995)²⁾. 한편 대부분의 구성원이 서로 모르는 데도 국민이라는 범주가 문화적 본질을 통해 심리적으로 실재하게 되기도 한다(Shin, Kashima, Laham, Kim, Park et al., 2012). 즉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가치로 한 나라가 본질화되는 것이다. 또한 자국민과 타국민 간 문화차이를 크게 지각하여 자문화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경직된 사고를 하게 될 수 있다(Chiu, Gries, Torelli, & Cheng, 2011)³⁾. 이들 연구에서 또 주목할 점은 더 이상 국민정체성에서 어떤 특성이 중요한지가 아니라 각 특성에 개개인이 얼마나 정체감을 갖는지를 직접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한 연구가 이 논점을 한층 더 발전시켜 법제도적 국민정체감에도 문화적 상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문화적 특성을 본질화할 때 얻어지는 국민정체감과 생물학적 특성을 본질화할 때 발생하는 국민정체감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르게 작동할 것임을 제안하였다(Whelan, 2007). 이를 토대로 다문화사회인 호

주에서 연구한 결과 호주인다움의 문화적 상징주의와 생물학적 상징주의를 경험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둘 다 국수주의와 타집단에 대한 태도와 상관있었으나 생물학적 차원만이 국수주의를 통제 한 이후에도 타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예측하였다. 한편 같은 연구에서 문화적 차원만이 국수주의와 애국심 모두를 예측함을 보임으로써 이것이 호주와 같은 다문화국가에서 국민정체성의 중요한 기초임을 드러내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국민이 비교적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아일랜드와 호주의 국민정체감 특성 간 차이를 밝혀내었다. 아일랜드에서는 문화적 차원이 국수주의와만 관련되었으나 호주에서는 문화적 차원이 애국심과 국수주의 모두와 상관있었다. 호주보다 아일랜드에서 생물학적 특성이 더 높았고 타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더 강했다. 이런 결과는 비교적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와 다문화 나라 간 문화적 상징주의와 생물학적 상징주의의 역할과 중요도가 다름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국내에도 한민족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혈통 중심 혹은 문화 중심으로 국민정체감을 나누어 그 하위차원이 외국인이나 이주민, 새터민들에 대한 태도 형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양계민, 2009). 그 결과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혈통 중심적 국민정체감이 높으면 외국인이나 이주민, 새터민들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반면 한국인은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문화 중심적 국민정체감이 높을 때에는 이런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에 대해 보다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요약하면 문화적 요인으로 국민정체감을 개념화하는 것이 한국과 호주에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예측했지만, 아일랜드에서는 타집단에

- 2) 이런 경향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보는 것은 성급할 수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해당 사회범주가 인종이 아니라 정신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설명이 공격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는 등 긍정적 변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Boysen, 2011)
- 3) 문화차이를 지각해도 그 차이 지각이 자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창조적 사고가 발휘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Chiu et al., 2011).

대한 폐쇄적 태도와 관련있었다. 문화가 귀속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개인의 선택으로 성취할 수도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최현, 2007), 문화에 대한 의미가 맥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Chiu et al., 2011) 이렇게 다른 심리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전통문화를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한 데다가 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할 때에도 문화를 중심으로 보는 국민정체감이 계속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고취시킬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즉 한국에서 문화정체감이 높을 때 타집단에 우호적인 이유는 한국사회가 이주민들로 하여금 주류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이진숙, 2010) 아직 전통문화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정체감의 본질로 구분한 차원들의 특성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크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질 중심적 차원과 역사

사람들이 자국민의 기원을 혈통적 혹은 법제도적으로 찾을 때 국수주의나 타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자국민의 구성을 다르게 지각하거나 자국민에 대한 고정관념(auto-stereotype)을 형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질이 개념화되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여러 사회과학자들은 대중매체와 제도교육에서 전파되는 국민의 기원, 역사, 미래에 대한 서사(narratives)를 통해서 생물학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이 본질화된다고 주장한다(Liu & Hilton, 2005; Sani, Bowe, Herrera, Manna, Cossa et al., 2007; Shin et al.,

2012; Whelan, 2007). 이런 이야기는 사건, 행위자, 목적, 행동 간 연결고리를 설명하여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범하고 상식적인, 특히 심리적으로 실제적인 국민의 존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믿음에 사람들이 집착할 수 있는데, 이 믿음체계가 국민의 객관적 특성과 그리고 실제 역사가 어떠했는지와 무관해도 그러하다. 또한 국민서사가 달라지면 국민 범주와 그 구성원의 본질에 대한 믿음체계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본질의 내용은 국민역사와 현 정치의 실제 맥락에 따라 또 달라진다. 따라서 국민정체성은 개인의 마음에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국민이 공공의 노력을 통해 시간에 걸쳐 재구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Zimmer, 2003).

이렇듯 국민에 대한 다른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정도에서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최근 대부분의 이론에서 국민과 국민정체성이 구성된다는 것은 핵심적 가정이다. 그 한 예로 아일랜드에서 지난 세기 초 잉글랜드에 대해 배타성과 대조에 초점을 두었던 국민정체성의 개념을 다원성과 유럽과 통합에 초점을 두도록 다시 개념화하려던 사례를 들 수 있다. 18세기 초 산업혁명의 산물인 스코틀랜드의 켈트 스커트가 유서 깊은 전통으로 재창안되어 (Giddens, 2002) 사람들이 이에 문화정체감을 가지는 경우도 해당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일제시대 식민지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던 호주제가 이전 한반도의 호적제도와는 이질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이정선, 2010; 정지영, 2003) 해방 이후에도 우리 고유의 유교적 전통이라고 인식되어 그 대안적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식민 통치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공식적 제도로 지지받았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은 과거의 특정한 역사를 현재의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불러내거나 심지어는 발명한 결과로서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전경환, 2010). 이런 사실로부터 국내 혹은 국제적 사건과 관련해서 한 사회의 엘리트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민정체성을 다시 개념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정체성과 세계화 및 다문화에 대한 태도라는 측면에서 국민정체감의 기원 및 본질에 대한 연구 경향을 논의했다. 국민 또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국민의 본질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이 분명히 심리학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고 그 심리적 결과가 모호함을 살펴보았다. 우선 혈통과 법제도에 기반한 국민정체감 관점에서 영토가 법제도적 속성인가 혈통적 속성인가, 또 언어는 습득이 쉬운 법제도적 속성인가 문화적 또는 혈통적 속성인가 하는 점 등에서 경험적으로 구분이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더 나아가 혈통적 속성을 다시 혈통과 문화에 기반해서 국민정체감을 나눈 경우에도 각 차원이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적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상황에서 국민정체감의 각 차원이 국수주의적 측면을 얼마나 보이는지 끊임없이 추적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세계화와 다문화사회에서 심리적 영향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정체감의 본질에 대한 관점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개념적 구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타집단 수용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따

른 결과에 근거하는 두 번째 관점에서는 국민정체감을 애국심과 국수주의 차원으로 구분한다.

국민정체감에 대한 기능 중심적 관점

국민정체감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국민 역사를 미화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집단죄책감을 더 강하게 느끼기도 하는 이 상반된 심리적 결과가 국민정체감을 결과로 구분하는 경우 더 직접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Roccas와 Klar, Liviatan(2006)은 국민정체감을 애국심과 국수주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 결보기에 상반된 심리적 현상을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서 내집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애국심은 이스라엘 학생들이 느끼는 과거 내집단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국수주의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만일 국민정체감이 단일한 차원이라면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설명될 수 없다. 동일하게 자기 나라에 대해 정체감이 높은 사람들이 과거 자국민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상반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국민정체감이 애국심과 국수주의 두 차원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애국심(patriotism)은 자국민에 대한 정서적 애착으로 국수주의(nationalism)는 자국민이 타국민에 비해 우월하다는 느낌으로 구분하여 개념화된다. Kosterman과 Feshbach(1989)는 애국심과 국수주의 모두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국수주의만이 외국인들이나 다른 나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애국심과 구

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즉 애국심은 자국민에 대한 개인적 애착인 반면, 국수주의는 자국민이 타국민보다 뛰어나기에 더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견해라는 것이다. Feshbach와 Sakano(1997)도 국민정체감의 이 두 차원을 비슷하게 정의했다. 그들에 따르면, 애국심은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 자부심이고 국수주의는 자기 나라가 우월하다고 느끼며 다른 나라에 대한 실행사를 욕망하는 것이다. 그들은 국수주의만이 타국민 집단에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개념화했다. 이와 비슷하게 Roccas 등(2006)도 애국심과 국수주의를 자국민 집단에 대한 애착과 영광으로 각각 정의했다. 나아가 Hage(2003)는 인종차별주의가 '편집증적 국수주의'와 동일하다고 규정하였다.

애국심과 국수주의에 대한 여러 견해

국민정체감의 기능적 구분에 대해 Blank와 Schmidt(2003)는 조금 다른 견해를 표명했다. 그들은 애국심과 국수주의를 국민정체감이 다른 목적을 가진 결과로 취급했다. 국수주의자들은 국가와 국민 간 권위주의적 관계를 선호하는 반면 애국자들은 구조적으로 권력이 분산된 사회체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애국심에 대한 견해는 비판적 충성심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건설적 애국심(constructive patriotism)에 해당한다(Schatz & Staub, 1997). 이와 비슷하게 Endensor(2002)는 포괄적(inclusive) 국민정체감을 배타적(exclusive) 국민정체감과 구분하고 전자를 “우리”에 대해 애매한 경계를 가진 것으로, 후자는 내집단과 타집단 간 차이를 본질화(essentialising)하는 것으로 개념정 의했다. 그에 따르면 배타적 국민정체감은 한

나라에서 고급문화에 대한 가치를 선택하여 경계를 그음으로써 소수민족이나 성적소수와 같이 상이한 문화를 주변화(marginalising)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화(exclusionary) 과정은 보다 포괄적(inclusionary) 과정과 경쟁하게 되는데, 포괄적 국민정체감은 문화적 다양성과 동등함(equality)을 함의하는 한편 배타적 경쟁 상대의 정상성(normality)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애국심과 국수주의 중 하나의 용어만을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이 두 개념의 뜻을 구분하였다. Reykowski(1997)는 우호적(benevolent) 애국심과 적대적(hostile) 애국심으로 구분하고 후자는 한 나라의 통합성이 시험에 들었을 때, 예를 들어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와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dorno와 동료들(Adorno, Frenkel-Brunswick, Levinson, & Sanford, 1950), Bar-tal(1997), Schatz와 Staub(1997)는 각각 진실된(true) 애국심과 의사(pseudo) 애국심, 근본적(fundamental) 애국심과 제한적(limiting) 애국심, 관습적(conventional) 애국심과 맹목적(blind) 애국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제안한 애국심과 국수주의와 비슷하게 국민소속감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애국심과 국수주의의 차원은 본질적으로 결과에 근거한 구분이며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의 편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Whelan, 2007). 예를 들어 Dekker와 Malova, Hoogendoorn(2003)은 국수주의와 애국심은 단일차원의 연속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빈약한 개념화라고 주장했다. 그들에 의하면 이 두 개념은 정체감을 갖는 정도에 차이가 있고 발달 단계가 다른 것으로, 국수주의가 애국심보다 더 강한 형태이고 후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정체성 관점에서 국민정체감은 단일 현상이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대로 애국심과 국수주의를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과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두드러지게 보고 싶은 동기에서 자국민에 대한 정체감이 더 강할수록 자국민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국수주의로 발달하는 것은 자연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Billig(1995, 1996)는 두 개념을 구분하는 가정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에서 자연적인 용어로 국수주의⁴⁾를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두 종류의 국민정체감을 구분하는 것을 거부했다.

애국심과 국수주의의 경험적 구분

하지만 광범위한 경험적 증거는 국민정체감이 애국심과 국수주의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Kosterman과 Feshbach(1989)는 국민정체감에 대한 다차원 척도를 개발하여 자국민에 대한 태

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요인분석한 결과 여섯 요인을 검출하였다. 이 중 처음 두 요인이 각각 애국심과 국수주의에 해당하였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두 가지 국민정체감이 행정책 의견과 다른 상관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국수주의 요인이 애국심 요인보다 행정책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일본인 표본을 대상으로 Feshbach와 Sakano(1997)도 이 요인분석 결과를 반복해서 검증하는데 성공하였다. Whelan(2007)도 국수주의만이 인지적 종결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 우파적 권위주의, 그리고 사회적 주도권 지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과 정적 관련을 드러냈지만, 애국심은 이 중 어느 것과도 관계가 없음을 보였다. 이 연구의 이차 요인분석에서는 국수주의가 시민 자유(civil liberties)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 하나의 요인에 위치하였는데, 이 둘은 부적 부하값을 가졌다. Feshbach와 동료들(Feshbach, 1987, 1991; Feshbach & Sakano, 1997)은 이에 더하여 애국심이 미국에서 아버지에 대한 유년기 애착과 유의한 상관있음을 그리고 일본에서는 양 부모 모두에 대한 애착과 관련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이 결과가 애국심이 사람들이 가지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국민에게로 확대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lank와 Schmidt(2003)는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은 외국인 거주자나 유대인 시민과 같이 소수 집단을 비하하지 않았으나, 국수주의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이 한 사회의 다양성을 국수주의자들보다 용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결론지었다. 국수주의자들은 자기 나라를 이상화시켜서 그 안이 동질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한 연구는 사람에게만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정서가 타집단보다

4) 이 경우 nationalism은 국민주의나 민족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 영어 사전에 의하면 nationalism에는 두 개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는 같은 인종, 문화, 언어 등을 공유하는 집단이 독립된 나라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망(Hornby, 2005)으로 '국민주의(민족주의)'로 번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흔히 자국민이 타국민보다 우월하다는 믿음과 관련되는 자국민에 대한 큰 사랑(Coubuild, 2003)으로 '국수주의'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되는 용어가 있는 한국에서는 국민주의(민족주의), 국수주의, 애국주의, 애국심이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이들 간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후속 논쟁이 필요하겠다.

는 내집단에서 더 풍부하다고 귀인하는 경향과 국수주의가 정적 관계에 있으나, 애국심은 이렇게 타집단이 덜 인간적이라고 지각하는 현상과 부적 관계를 가짐을 보였다(Viki & Calitri, 2008). 이와 비슷하게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은 유럽통합을 통해 폴란드 경제를 향상시켜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에 대해 고려하면서 반대 의견도 수용하였으나, 국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유럽통합에 드는 비용에 초점을 두고 이점을 참아내지 못하면서 통합주의자들에 대해 두려움을 보였다(Scarzynska & Zavalá, 2006). 마지막으로 국민정체감의 두 기능 차원은 집단에 근거한 죄의식을 느끼는 것과 일관되게 상반된 관계를 가졌으며(Roccas et al., 2006), 애국심이 아니라 오직 국수주의만이 이라크의 경우와 같이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군사적 조치를 선호하는 것과 종결욕구(need for closure) 간 관계를 매개하였다(Golec, Federico, Cislak, & Dial, 2006).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국심과 국수주의는 모두 긍정적 내집단 평가와 관련있지만, 다양성, 타집단 차별, 내집단 부도덕성(moral violation)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함의점이 다름을 입증한다.

기능 중심적 차원과 역사

애국심과 국수주의의 차이를 개념화하는 한 가지 다른 방식은 국민정체감의 시간차원을 고려하는 것이다. Mummendey와 Klink, Brown (2001)은 참가자의 현재 국가를 과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과제를 줌으로써 애국심과 국수주의를 점화(priming)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들 연구에서 자기 나라의 현재 상태와 역사적 과거를 비교하라고 요청

하면 애국심과 비슷한 국민정체감이 활성화되었다. 또 이 조건에서 국민정체감은 타집단을 비하하는 태도와 관련이 없었다. 반면, 자기 나라를 현대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수주의와 같은 국민정체감이 활성화되었다. 이 조건에서 사람들은 정체감이 강할 때 타집단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자기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상황 이른바 시간차원에 따라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경우와 자국민과 타국민을 비교하게 되는 상황 이른바 집단 간 차원에 따라 자기 나라를 생각한 경우 다른 특성의 국민정체감이 점화됨을 보임으로써, 애국심과 국수주의적 생각이 시간차원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들에게 역사적 변화를 상기시키면 애국심이 촉진되지만 동시대 국제적 비교는 국수주의를 일으킨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몇몇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ilewicz(2007)는 두 집단이 충돌했던 과거가 있을 때 역사를 떠올리게 하면 타집단에 대해 국수주의와 비슷한 태도가 촉발됨을 발견했다. 그들은 폴란드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자리에서 역사적 사안이나 현대적 이슈 중 하나를 두드러지게 인식하게 하면 대인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는 오직 현대적 이슈 조건에서만 나타남을 밝혔다. 즉 현대의 정치적 사안이나 개인적 문제를 논의할 때가 이차 세계대전이 주제인 역사적 사안을 이야기할 때보다 상대집단을 더 좋아하거나 서로 비슷한 점이 더 많다고 지각하였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두 민족 집단 간 유대인대학살에서 폴란드인이 한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에서 일어난 유대인 대학살에서 폴

란드인들이 방관자였거나 심지어는 협조자였다고 생각하는 반면 폴란드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최근 연구(Wohl & Branscombe, 2008)에서 유태계 캐나다인들로 하여금 2차 대전에 일어난 대학살을 생각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피해를 준 조치에 대한 집단죄의식을 더 적게 경험함을 보였다.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2001년 9/11 테러나 혹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역사를 떠올리게 한 다음에는 이라크인들에게 자국민들이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해 집단죄의식을 더 적게 느꼈다. 이런 결과는 내집단이 피해를 입었던 역사적 사건이 두드러지면 현재 대립 중인 타집단이 과거에 내집단을 희생시킨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특정 타집단에 속 좁게 대응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비교를 시키거나 자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타집단에 대해 국수주의적 감정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현대적 이슈나 상징은 애국심과 같은 느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현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즉 과거와 현재의 “내용”일 수 있다. 특히 과거나 현재 갈등이나 경쟁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만일 과거에 타집단과 대립이 없었다면 역사를 떠올림으로써 그 집단을 수용하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다. 반대로 과거에 타집단과 갈등이 있었다면 해당 역사를 떠올리는 것이 그 집단을 거부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회적 처지 혹은 정치적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사안을 논하게 하거나 집단

간 비교를 하게 함으로써 집단 간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두 집단이 갈등상태에 있다면 현재 정치적 사안을 토론하는 것이 집단 간 혐오를 악화시키고 국수주의와 비슷한 국민정체감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애국심과 국수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비교를 통해 사람들이 연대와 협력 대 갈등과 반목 중 무엇을 활성화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다른 국민정체감의 주관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타집단 명예 훼손 경향과 간접적 관계를 가지는 여러 본질에 대한 이론이든 직접적 관계를 가지는 결과적 차이에 대한 이론이든 모두 구체적 역사의 중요함으로 귀결됨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역사 혹은 시간차원이 국민정체감의 중요한 측면임을 시사해준다. 즉 사람들이 과거 역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느낌이 현재 자기 나라와 심리적 연관성을 찾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가지는 태도 간 관계가 한층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위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Memmende이 등(2001)을 비롯해 한 나라가 과거에서 역사적 변화를 거쳐 현재의 상태가 된 과정인 국민 역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밀접한 주의를 기울여 국민정체감을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유용할 수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세계화와 다문화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변화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중심으로 국민정체감에 대한 두 가지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민정체감의 본질 중심적 관점은 그 구분이 법제도, 문화, 혈연 등으로 다층화되어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민정체감의 기원이 혈연에 있는지 법제도에 있는지, 혹은 한국인의 정체감을 민족정체감으로 제한하여 세계화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사안은 분명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그 심리적 결과가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두 번째 타집단에 대한 태도에 근거해서 국민정체성의 차원을 구분하는 기능 중심적 관점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탄탄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사적 의미를 포함시키기에는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관점의 애국심과 국수주의의 구분은 국외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각 연구 경향에는 나름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느 연구 관점이 세계화 속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론화에 더 강하고 사람들의 심리적 경험을 더 잘 설명해 줄 것인지는 후속 연구가 답을 해 주어야 한다. 국내외 국민정체감과 관련한 많은 현상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 일반이 주의를 기울이고 각각의 연구목적에 따라 적절한 개념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관점 모두에서 자국민역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적 제언을 하고 있다

는 데 주목할 만하다.

국내 연구 현황

세계화 및 다문화 현상과 관련하여 국민정체감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한 갈래에서는 국민정체감이나 민족정체감을 단일한 차원으로 간주하고 세계화 및 다문화현상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심우엽, 2009). 여기에는 이주한 주민들의 국내 적응(이진숙, 2010) 아니면 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현지 적응(류지영, 2005; 이신영, 2002), 혹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한국 주류 문화에 대한 적응 문제(최운선, 2012) 등을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혈통 중심과 법제도 중심으로 국민정체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차원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한지(정기선, 이선미, 2011) 혹은 국내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김현숙 등, 2011; 윤인진, 송영호, 2011; 최현, 2007). 또는 한민족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혈연 중심 혹은 문화 중심으로 국민정체성을 나누어 그 하위차원이 외국인이나 이주민, 새터민들에 대한 태도 형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양계민, 2009). 종합해보면 국내 연구는 국민정체성을 단일차원으로 보거나 국민정체성의 주관적 차원을 고려한다 해도 그 폭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국외 사회심리학자들이 국민을 처음부터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이라는 개념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초점을 두어 국민정체감을 연구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상대적으

로 국내 연구자들은 한민족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을 혈연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민족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18년 Wilson이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했을 때 ‘nation’이 민족으로 번역되었고 국가를 상실했던 당시에 이러한 개념화에 정당성이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국민을 ‘한민족’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등과 같은 이주민들을 주변화하는 문제를 낳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다.⁵⁾ 왜냐하면 민족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거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공통점이 필수적이라서(이희승, 1982), 근래 이주하여 새로이 국민이 된 사람들을 포괄할 수 없는 배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초등학생들의 단일민족 사고가 강해서 다문화 친구들을 한국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들을 낮게 평가하며 차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심우엽, 2010). 이런 한국인들의 편견은 이주민의 조직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신의 민족정체성이 불거졌을 때 동남아시아인들이 한국인 면접관 앞

에서 자신이 덜 유능하다고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황지현,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김혜숙, 2012). 반면 한국의 국민으로서 정체감을 강하게 가지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이로써 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최운선, 2012).

바야흐로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넘어가면서 국민을 민족으로 본질화하는 것을 멈추고 법제도적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국민정체성의 본질 관점에서 혈통 중심과 법제도 중심으로 구분하였을 때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혈통적 요인이 우세했으나(정기선, 이선미, 2011), 내부적으로는 혈통 차원보다 법제도 차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등, 2011; 최현, 2007). 한국인들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혈연차원보다 법제도차원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일반인보다 더 강하게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서양인이나 일본인에 더 우호적이고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인들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도경, 김창숙, 2011). 한국인은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문화·국민에 대해서만 다문화적 개방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 중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문화·국민에게 대해서는 배타적인 한계를 보였다(최현, 2007). 또한 국내 연구자들도 국민이나 국민정체감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더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이나 민족정체감을 고집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예: 심우엽, 2009; 양계민, 2009; 최운선, 2012).

하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개념화할 때는 여전히 민족이란 용어가 유용할 수 있다. 한반도가 해방과 함께 강대국에

5) 이와는 다르지만 국내에서 비슷하게 심각한 개념 문제가 있다. 즉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국가정체성(state identity)으로 빈번하게 혼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산업화 시기의 지나친 국가 중심적 세계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 국가가 국민에 우선한다는 사고방식의 잔재로 해석된다. 하지만 특히 심리학적으로는 국민들이 가지는 특성인 국민정체성과 국가가 하나의 기관으로 가지는 정체성인 국가정체성이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단적으로 한 개인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특성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지각할 수는 있어도(국민정체감) 개인 자신이 국가와 동일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심리학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의해 분단되었기 때문에, 한 국가로 남북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남북의 국민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분단 이전 몇 백 년의 시간을 공유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통일이 화두인 한에서는 민족과 민족정체감이라는 개념은 역사에 묻히지 않고 현재에도 살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탈북 이주민들의 국내 적응이나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 사회통합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윤인진, 송영호, 2011). 민족정체감이 이민자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지지만 탈북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예측한다(권수현, 2011)는 점을 고려하건데 한국인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특수성을 간과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세계 속의 한국

다른 한편, 한국은 국외에서도 세계화에 당면해 있다. 한국의 기업이나 문화적 산물들이 외국에서 점점 대중성을 얻어가고 있으며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해외 어느 나라에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추한 한국인으로 낙인찍히고, 혹은 외국인의 테러 대상이 되거나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개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미교포들이 민족정체성을 높게 유지할수록 민족집단의 활동도 강했고(류지영, 2005), 자아존중감은 높았으며 우울증은 낮다고 보고하였다(이신영, 2002). 한국인의 민족정체감이 이주해간 나라에 대한 적응을 높인다는 이런

결과는 고무적이거나, 한국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민족정체감이 강할수록 한국사회의 주류문화에 적응하는데 더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국내 결과(이진숙, 2010)와 배치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사회가 다문화주의를 한국보다 더 잘 실천하고 있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주류문화를 이주민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국내 주류문화권에 속하는 국민 뿐 아니라 이주민도 행복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 다룰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측면에서 한국인은 넓은 아시아지역 중 한반도라는 작은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으로 혹은 개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인들의 국민정체감과 아시아정체감을 타국과 비교한 연구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아시아지역에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는 평균 정도였고(서운석, 2009), 시장 개방에는 유연했지만 자국민고용이 우선이라는 국수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조, 2002). 이들 연구에서 더 나아가 애국심과 국수주의차원을 직접 측정하여 한국인이 느끼는 국내외 동향 및 정책에 대한 태도와 기능 중심적 국민정체성의 차원 각각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밝힌다면 더욱 흥미로운 것임을 제안한다.

제언

이러한 한국의 최근 국내 상황과 국제관계가 지금까지 살펴 본 학문적 논쟁에 아주 좋은 무대가 될 수 있을 듯싶다. 지금 막 세계적으로 그 존재가 인식되고 있는 지구 유일의

분단국이면서 가장 단 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는 한국의 역사적 국제적 특수성은 심리학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수많은 심리학적 현상과 원인을 연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다차원적 국민정체감의 관점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Kashima와 동료들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보에 의존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면서 이에 ‘사회변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론(folk theories of social changes)’이라 명하였다(Kashima, Bain, Haslam, Peters, Laham, et al., 2009; Kashima, Shi, Tsuchiya, Kashima, Cheng et al., 2011). 그들은 사람들이 행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은 매우 중요한 심리요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화와 관련된 정책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그 예로 이들 연구에서 사람들은 정치적 선택을 통해 미래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복지확충과 같이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정책을 선호함이 밝혀졌다. 이렇듯 세계화에 따른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보 중 하나가 과거 혹은 현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정체감에 역사적 차원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개념화가 유용할 수 있다(Shin et al., 2012).

이러한 심리학적 발전은 절대로 사회나 정치심리학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및 조직, 발달, 교육, 국제, 임상심리학 등 심리학 일반에 걸쳐 가능하다. 이민자에 대한 거부, 편견, 폭력과 이민자들이 느끼는 불평등감으로 인한 범죄 등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되고 있는 바, 이런 혼란이 한국의 특수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주민들이 자신의 민족정체감과 새로운 국민정체감 간 갈등으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신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Haslam, Jetten, Postmes, & Haslam, 2009). 또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임도경, 김창숙, 2011)는 점을 고려해서 외국인을 얼마나 인간적이라고 개념화하는지, 그리고 이런 개념화가 국민정체감의 여러 차원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연구한다면 심리학이 보다 더 좋은 다문화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이 포착하지 못한 자국민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역겨워하고 미워하는 부정적 국민 정체성(Tajfel & Turner, 1979; Dekker et al., 2003)과 같은 연구 주제들에도 매진한다면 한국 심리학계가 사회정체감 영역에서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도 허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정체성 이론과 사회범주화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회정체감의 다양한 주관적 의미(Huddy, 2001)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클 것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수현. (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20, 129-153.
- 김병조 (2002). 세계화시대의 국민정체성 비교 연구. *정신문화연구*, 25, 31-53.

- 김현숙, 최송식, 김희재. (2011). 국민정체성과 다문화태도의 관계: 한, 중, 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5, 141-168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류지영. (2005). 재미한인 영재 청소년의 민족적 정체감 형성. *청소년학연구*, 12, 347-369.
- 서운석 (2009). 대응분석을 통한 “아세안+3” 지역의 사회정체성 비교 연구. *아시아연구*, 12, 141-164.
- 심우엽. (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 27-47.
- 심우엽 (2010). 초등학교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23, 43-63.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 387-421.
- 윤인진,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 143-192.
- 이순형. (1991). 민족정체감의 개념화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7, 139-152.
- 이신영. (2002). 재미교포의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389-405.
- 이정선 (2010). 한국 근대 호적제도의 변천: 민적법의 법제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55, 275-329.
- 이진숙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 919-932.
- 이희승 (1982). *국어대사전*, 개정판. 서울: 민중서림
- 임도경, 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 5-34.
- 전경환. (2010). 전통과 담론. *어문논집*, 61, 397-417.
- 정기선, 이선미. (2011). 국민정체성 국제 비교 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9, 45-72.
- 정지영 (2003). 오늘에 살아 있는 역사 1: 제국의 유산-호주제와 직계가족의 신화. *내일을 여는 역사*, 13, 124-138. http://www.dbpia.co.kr/view/is_view.asp?isid=29995.에서 2012, 6, 28 인출.
- 최운선. (2012). 한·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민족 정체감, 차별경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7, 49-71.
- 최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 147-173.
- 황지현,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김혜숙 (2012). 다중사회정체성 맥락에서 평가자 집단 유형 이 동남아이주민들의 자기고정관념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123-150.
- Adorno, T. W.,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Bar-Tal, D. (1997). The monopolization of

- patriotism. In D. Bar-Tal & E. Staub (Eds.), *Patriotism in the lives of individuals*(pp. 246-270).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 Reber, A. S., & Reber, E. (2001). *The penguin dictionary of psychology*, 3rd ed. Penguin Group.
- Bilewicz, M. (2007). History as an obstacle: Impact of temporal-based social categorizations on Polish-Jewish intergroup contact.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 551-563.
- Billig, M. (1995). *Banal nationalism*. London: Sage.
- Billig, M. (1996). Nationalism as an international ideology: Imagining the nation, others and the world of nations. In G. M. Breakwell & E. Lyons (Eds.), *Changing European identities: Social psychological analyses of social change. International series in social psychology* (pp. 181-194).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Blank, T., & Schmidt, P. (2003). National identity in a United Germany: Nationalism or patriotism? An empirical test with representative data. *Political Psychology*, 24, 289-312.
- Boysen, (2011). Biological explanations and stigmatizing attitudes: Using essentialism and perceived dangerousness to predict antistigma intervention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1, 274 - 291
- Branscombe, N. R., & Doosje, B. (2004).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experience of collective guilt. In N. R. Branscombe & B. Doosje (Eds.), *Collective guilt: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3-1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nscombe, N. R., Slugoski, B., & Kappen, D. M. (2004). The measurement of collective guilt: What it is not. In N. R. Branscombe & B. Doosje (Eds.), *Collective guilt: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16-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rnilo, D. (2011) The critique of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ory and history. *Thesis Eleven*, 106, 98-117
- Chiu, C-y., Gries, P., Torelli, C. J., & Cheng, S. Y. Y. (2011).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global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67, 663-676.
- Cobuild, C. (2003).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4th edition*. Glasgow: HarperCollins Publishers.
- Dekker, H., Malova, D., & Hoogendoorn, S. (2003). Nationalism and its explanations. *Political Psychology*, 24, 345-376.
- Doosje, B., Branscombe, N. R., Spears, R., & Manstead, A. S. R. (1998). Guilty by association: When one's group has a negative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872-886.
- Doosje, B., Branscombe, N. R., Spears, R., & Manstead, A. S. R. (2004). Consequences of national ingroup identification for responses to immoral historical events. In N. R. Branscombe & B. Doosje (Eds.), *Collective guilt: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95-11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ensor, T. (2002). *National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everyday life*. Berg.
- Feshbach, S., & Sakano, N. (1997). The structure and correlates of attitudes toward one's nation in samples of United States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In D.

- Bar-Tal & E. Staub (Eds.), *Patriotism in the lives of individuals* (pp. 91-107). Chicago IL, US: Nelson-Hall Publishers.
- Gellner, E.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p.
- Giddens, A. (2002). *Runaway world: How globalization is reshaping our lives, Revised Ed.* Routledge.
- Gil-White, F. J. (2001). Are ethnic groups biological species to the human brain? Essentialism in our cognition of some social categories. *Current Anthropology*, 42, 515-554
- Golec, A., Federico, C. M., Cislak, A., & Dial, J. L. (2006). Need for closure, national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conflict: Distinguishing the roles of patriotism and nationalism. *Advances in Psychology Research*, 39, 51-71.
- Greenfeld, L. (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slam, S. A., Jetten, J., Postmes, T., & Haslam, C. (2009). Social identity, health and well-being: An emerging agenda for applied psychology.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8, 1-23
- Hastings, A. (1997). *The construction of nationhood: Ethnicity, religion and nationalis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ge, G. (2003). *Against paranoid nationalism: Searching for hope in a shrinking society*. Annandale: Pluto Press.
- Hesli, V. L., & Hansen, H. E. (2009) National identity: Civic, ethnic, hybrid, and atomised individuals. *Europe-Asia Studies*, 61, 1-28.
- Hobsbaum, E., & Ranger, T.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rnby, A. S. (2005).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7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uddy, L. (2001). From social to political identity: A critical examin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Political Psychology*, 22, 127-156.
- Huntington, S. P. (1998)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Simon & Schuster
- Jones, F. L., & Smith, P. (2001).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 103-118.
- Kashima, Y., Bain, P., Haslam, N., Peters, K., Laham, S., Whelan, J., Bastian, B., Loughnan, S., Kaufmann, L., & Fernando, J. (2009). A folk theory of social chang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227-246.
- Kashima, Y., Shi, J., Tsuchiya, K., Kashima, E. S., Cheng, S. Y. Y., Chao, M. M., & Shin, S.-H. (2011). Globalization and folk theory of social change: How globalization relates to societal perceptions about the past and future. *Journal of Social Issues*, 67, 696-715
- Keller, J. (2005). In genes we trust: The biological component of psychological essentialism and its relationship to mechanisms of motivate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686-702.
- Kosterman, R., & Feshbach, S. (1989). Toward a measure of patriotic and nationalistic attitudes. *Political Psychology*, 10, 257-274.

- Liu, J. H., & Hilton, D. J. (2005). How the past weighs on the present: Social representations of history and their role in identity politic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537-556.
- Martin, C. L., & Parker, S. (1995). Folk theories about sex and race differ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45-57.
- Medin, D. L., & Ortony, A. (1989). Psychological essentialism. In S. Vosniadou & A. Ortony (Eds.), *Similarity and analogical reasoning* (pp.179-195). New York: Cambridge Press.
- Mummendey, A., Klink, A., & Brown, R. (2001). Nationalism and patriotism: National identification and out-group rejec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159-172.
- Prentice, D., & Miller, D. T. (2007) Psychological essentialism of human categor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 202-206
- Reykowski, (1997). Patriotism and the collective system of meanings. In D. Bar-Tal, & E. Staub (Eds.), *Patriotism in the lives of individuals* (pp. 108-128). Chicago, IL, US: Nelson-Hall Publishers.
- Roccas, S., Klar, Y., & Liviatan, I. (2006). The paradox of group-based guilt: Mod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conflict vehemence, and reactions to the in-group's moral vio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698-711.
- Sani, F., Bowe, M., Herrera, M., Manna, C., Cossa, T., Miao, X., & Zhou, Y. (2007). Perceived collective continuity: Seeing groups as entities that move through tim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1118 - 1134.
- Schatz, R. T., & Staub, E. (1997). Manifestations of blind and constructive patriotism: Personality correlates and individual-group relations. In D. Bar-Tal & E. Staub (Eds.), *Patriotism in the lives of individuals* (pp. 229-245). Chicago: Nelson-Hall.
- Shin, S.-H., Kashima, Y. Laham, S. M., Kim, U., Park, Y.-S., Koo, J. & Park, J. (2012). Temporal Dimension of National Identific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and Australia.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Under Review.
- Skarzynska, K., & de Zavalía, A. G. (2006). Poland and European integration: Hopes, fears and national attitudes. In A. G. de Zavala & K. Skarzynska (Eds.), *Understanding social change: Political psychology in Poland* (pp. 135-154).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 Smith, A. D. (1991).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Books.
-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94-109). Monterey, Calif.: Books/Cole.
- Tilley, J., Heath, A., & Ford, R. (2006). *Testing theories of national identity: A multi-level approach*. Durban, South Africa: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Basil Blackwell.
- Tyler, T. (2006).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375-400.

- Viki, G. T., & Calitri, R. (2008). Infrahuman outgroup or suprahuman ingroup: The role of nationalism and patriotism in the infrahumanization of out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1054-1061.
- Whelan, J. A. (2007). *Essentialist beliefs about national identity: National symbolism as national essence*. Ph.D. 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Williams, M. J., & Eberhardt, J. L. (2008). Biological conceptions of race and the motivation to cross raci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1033-1047.
- Wohl, M. J. A., & Branscombe, N. R. (2008). Remembering historical victimization: Collective guilt for current ingroup transg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988-1006.
- Zimmer, O. (2003). Boundary mechanisms and symbolic resources: Towards a process-oriented approach to national identity. *Nations and Nationalism, 9*, 173-193.
- 1 차원고접수 : 2012. 6. 30.
수정원고접수 : 2012. 11. 8.
최종게재결정 : 2012. 12. 18.

Various Perspectiv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Research Suggestions for Globalis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Shang-Hui Shin

Taekyun Hur

Yoshihisa Kashima

Korea University

University of Melbourne

National identification refers to the psychological sense of belongingness to one's own nation or country. The article reviews two different approach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as psychological frameworks by which social phenomena could be understood inside and outside of Korea in the context of ongoing globalisation. The first section reviews the essentialist perspective on national identification based on different components such as genealogy, culture, law, or institutions from which people believe their nation has originated. This perspective was meaningful in the Korean context because it is one of the subjective meanings of Koreans' national identification, but was not psychologically useful to predict people's attitude towards immigrants or foreigners in many multi-cultural societies. Then, we reviewed theoretical debates and empirical findings about the functional perspective of national identification, namely patriotism and nationalism, distinguished by their effects.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this approach in Korea even though it is a good framework to predict people's perception about immigrants or foreigners. It is noteworthy that the historical component has crucial implications with various national identifications from all three perspectives despite their different characteristic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employing both approaches,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open the opportunities for psychologists to develop relevant theories and to help to establish a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Key words : national identification, patriotism, nationalism, essentialism, national history